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석사 학위논문

미디어를 통해 방글라데시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A Study on Perception of Koreans about Bangladeshi People through Media

2015 February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쉐우리

A Study on Perception of Koreans about Bangladeshi People through Media

A Thesis Presented by Sheuli Fateha

To

Graduate Program in Korean Studies in Partial Fulfillment of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in the Subject of International Studies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February, 2015

석사 학위논문

미디어를 통해 방글라데시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지도교수 박태균

이 논문을 쉐우리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2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쉐우리

쉐우리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2월

위 원 장 殷棋洙 (인)

부 위 원 장 金泰均 (인)

위 원 朴泰均 (인)

Master's Thesis

A Study on Perception of Koreans about Bangladeshi people through Media

Academic Advisor Tae-Gyun Park

Submitting a master's thesis of Korean Studies

February 2015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 Studies, International Studies

Sheuli Fateha

Confirming the master's thesis written by Sheuli Fateha

February 2015

Chair Ken Kisoo (Seal)

Vice Chair Taelayoon Kim (Seal)

Examiner Tae Gyun Park (Seal)

<국문초록>

한국에서 1990 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이래 한국은 다국적 국가가되어가고 있지만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의 변화는 같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듯이다.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들을 차별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인 현상이다. 최근 몇년 동안 한국 미디어가 외국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한국에서 대중적인 영화와 드라마에 외국인들이 출현시키고 있다. 이들 영화와 드라마는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고 있는 차별의 문제를 표출하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매우 다양하며 방글라데시 출신 한국 거주자의 수는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최근에 외국인을 중심으로 제작된 영화나 드라마에서 방글라데시인이 주요 역할로 출연하는 것을 흔하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미 아시아 노동자들의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에서 다루고 있지만, 영화와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그러한 차별을 드러낸 영화와 드라마에 대해서 한국 사회의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많이 다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방글라데시인이 출연하는 영화와 드라마를 분석하고, 이러한 영화와 드라마에 대한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분석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두 편의 영화 <반두비>와 <방가방가> 그리고 한 편의 드라마 < 막돼먹은 영애씨>의 분석을 통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인들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 할 수 있다. 분석 대상인 영화와 드라마에서 작가들은 한국인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을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 대부분은 불법 이민자인 동시에 무슬림이기 때문에 이상하고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한국인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네티즌들의 반응 역시도 이와 인맥상통하는 점에서 영화와 드라마가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편견은 오리엔탈리즘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잘 모르는 한국인을 통해 한국인들이 여전히 종족적 민족주의라는 개념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작가들의 의도와 네티즌들의 반응을 통해 방글라데시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이 한국사회의 빠른 다문화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리엔탈리즘과 종족적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한국인의 사고체계를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키워드: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한국인, 인식, 오리엔탈리즘, 종족적 민족주의.

학번: 2012-22830

목차

1 장 서론.....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2. 기존 연구성과.....2

3. 연구이론과 방법.....5

1) 오리엔탈리즘.....5

2) 종족적 민족주의.....7

3) 연구 방법론.....9

2 장 한국에 거주하는 방글라데시인 현황.....12

1. 방글라데시의 소개와 한-방 관계.....12

2. 한국에 방글라데시인의 현황.....13

3 장 한국 영화와 드라마에 나타난 방글라데시인.....16

1. <반두비>의 카림.....16

2. <방가방가>의 알리.....21

3. <막돼 먹은 영애씨>의 스잘…….....……24

4. 영화와 드라마 분석…….....…… 28

4 장 미디어에 나타난 방글라데시인에 대한 한국 네티즌의 반응….....…30

1. 한국 네티즌의 반응…….....……30

1) <반두비> 영화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30

2) <방가방가> 영화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32

3) <막돼먹은 영애씨> 드라마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33

2. 네티즌 반응에 대한 분석…….....……34

5 장 결론…….....…….36

참고문헌…….....……39

Abstract…….....……44

Acknowledgements…….....……46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외국인 노동자의 역사는 이미 20 년이 넘었다. 1990 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2000 년대 중반 이후에는 100 만명이 넘어서게 되었다.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해서 한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를 모두 합하면 2014 년 11 월 현재 170 만에 달하게 되었다.

그런데 1990 년대와 2000 년대 초만 하더라도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주로 조선족과 중국인이었다. 물론 현재에도 조선족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2014 년 11 월호)에 의하면 조선족의 수가 58 만 8 천여명으로 전체의 1/3 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인 30 여만명을 합치면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 인구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1]

그러나 특기할 점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매우 다양하며, 특히 아시아 노동자들의 대거 유입으로 인해서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오는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00 년대에 들어와 급증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1990 년 1,060 명에 불과하던 한국 내 체류자의 수가 2005 년 15,116 명을 피크로 해서 조금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여 2014 년 9 월 현재 14,318 명에 달하고 있다.[2] 이는 다른 아시아계 노동자들의 수자에 비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방글라데시와 한국과의 관계가 아주 가깝지는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는 적지 않은 수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흐름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의 한 부분이 되었고, 한국인들의 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주제로 하는 영화도 나왔고, 최근에는 드라마에도 출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문화방송에서 했던 아침드라마에서는 야채 가게에서 일하는 점원으로 아시아 노동자가 등장하기도 했다.

---

[1]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2014 년 11 월호.

[2]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통계월보』, 2014 년 9 월호.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한국 사회에서 주목을 받았던 영화와 드라마에 방글라데시 출신의 국가에 비해 적은 편이다. 중국은 물론, 베트남(12 만 9 천여명), 태국(9 만여명), 필리핀(5 만 2 천여명)에 비하면 매우 작은 수이며, 방글라데시의 인접국인 네팔(2 만 6 천여명), 스리랑카(2 만 5 천여명), 미얀마(1 만 5 천여명)에 비해서도 작은 수이다.[3] 이렇게 수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왜 한국의 대중적인 영화와 드라마에 방글라데시 출신의 노동자들을 출연시킨 것일까?

물론 이는 시나리오 작가의 취향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특별히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문제는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고 있는 차별의 문제가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 표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아시아 노동자들의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에서 다뤄지고 있다. 그렇다면 영화와 드라마에서는 과연 이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그러한 차별을 드러낸 영화와 드라마에 대해서 한국 사회의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방글라데시인이 출연하는 영화와 드라마를 분석하고, 이러한 영화와 드라마에 대한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분석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2. 기존 연구성과

방글라데시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정현경, 황영미, 류찬열의 기존 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논문들은 모두 한국 영화에 나타난 다문화사회를 중심으로 이주민에 대해 분석한 연구이다.

방글라데시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연구하기에 정현경의 연구는[4]큰 의미를 지닌다. 정현경는 코리언드림을 품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을 두 편의 영화 <로니를 찾아서>(심상국 감독, 2009)와 <반두비>(신동일 감독, 2009)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이 두 영화를 통하여 저자는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에 의해 한국에서 거주하는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들에 인식을 분석했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점차 증가 하고 있는 이주민에

[3]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2014 년 11 월호.

[4] 정현경, 2011, 「영화로 재현된 디아스포라 연구- <로니를 찾아서>와 <반두비>를 중심으로-」, 『어문연구학회』, Vol. 67.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 문제와 소통의 가능성을 논의하고 영화를 통해 이주민에 대한 시각과 차이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이다.

저자는 <로니를 찾아서>와 <반두비>는 이주민을 향한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타자담론과 오리엔탈리즘에 근거한 이분화된 사고를 경계하고 검은 피부와 색다른 외모 속에 실존하는 '인간'을 발견하라는 주문을 하는것이다.[5] 본 논문에서 이주민의 정체성 문제를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저자는 차별과 대립의 틀을 간신히 벗어나온 인호와 민서의 하위주체적 삶은 여전히 남은 현실이며, 그들 주변에는 여전히 고정관념으로 규격화된 인식의 틀 안에 국한되어 이주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정현경은 본 연구를 통해 디아스포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국가나 인종 혹은 성별이나 피부색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영화속에서 한국인의 인식을 보여주었다는 하지만 이는 영화의 작가의 의도에 불과하다. 작가의 의도 밖의 일반한국인의 디아스포라에 대한 인식을 보여 주지 않았다는 문제는 본 연구에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는 저자가 오리엔탈리즘을 중심으로 디아스포리의 위치를 연구했지만 민서와 인호의 주변 사람이 이주민을 쉽게 받아드리지 않은 문제를 설명할 때 종족적 민족주의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

황영미는 연구[6]에서 한국영화에 나타난 외국인 노동자와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권과 다문화가정자녀 교육문제 등에 대해 조영하였다. 이주민 급증 초기였던 1997년 개봉작인 <바리케이드>에서부터 2010년 개봉작인 <방가방가>까지를 대상으로 10여 년 동안 한국 영화에서 나타난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수용 양상을 텍스트 분석을 통해 추적했다.[7]

이 논문은 다문화의 인식론적 토대가 되는 여러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접근했다. 첫번째로는 스피박의 '하위주체는 말할 수 있는가'라는 개념이다. 두 번째로는

---

[5] 정현경, 위의 글, 251 쪽

[6] 황영미, 2010, 「한국 영화에 나타난 다문화 양상 연구 -이방인 수용 양상을 중심으로-」, 『영화연구』, 47 호.

[7] 황영미, 위의 글, 241 쪽.

데리다가 말하는 ‘환대’이다. “데리다는 ‘이방인’이 존재규정이 아니라, 위치에 따라 상대적으로 주어지는 호칭임을 주장한다”.[8] 세 번째로는 들뢰즈/가타리가 말한 ‘-되기’이다. 저자는 <로니를 찾아서>(2009), <반두비>(2009), <방가방가>(2010) 같은 영화에서는 한국인에게 외국인이 ‘이방인 되기’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이방인 되기’라는 단어로 한국에서의 인종차별 현황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한국에서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수용 양상의 변화가 추적 가능하리라고 본다. 본 글은 전술한 영화들을 통해 다문화 양상의 문제점을 환기시켜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다문화사회의 지향점을 영화가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9]

류찬열은 2009년 개봉한 <로니를 찾아서>와 <반두비>에 나타난 이주노동자의 재현 양상을 발췌하고, 이를 근거로 한국사회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한국사회가 다문사회로 진입하면서 다문화 담론도 함께 활성화되고 있다. 다양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지만, 모든 다문화 담론들은 ‘타자성에 대한 존중’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정’을 기본적으로 전제 한다. 문제는 담론이 아니라 실천이다.”[10] 저자에 따르면, 한국사회가 진정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담론과 다문화 실천 사이에 놓인 괴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방법이 모색될 수 있지만,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상서사물(특히 영화나 TV드라마)을 통한 문화적 실천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11]

본 논문에서 이주노동자의 대한 인식과 태도를 고찰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

[8] 황영미, 위의 글, 241 쪽.

[9] 황영미, 위의 글, 241 쪽.

[10] 류찬열, 2010, 「2000 년대 한국영화에 나타난 이주노동자의 재현 양상 연구－<로니를 찾아서>와 <반두비>를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스연구』, Vol 8, 149 쪽.

[11] 류찬열, 위의 글, 139 쪽.

저자는 한국사회에서 외국인이 당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사유하고 성찰할 수 있는 방법에 강조하는 것이다.

세 가지 기존의 연구성은 다들 이 영화들을 통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에 대한 연구이다. 각각 논문은 공통적으로 다른 영화와 같이 방글라데시인이 출연된 <반두비> 영화를 중심으로 한 연구이지만 연구의 목적은 방글라데시인이 아니었다. 본 논문은 방글라데시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연구하고자 방글라데시인이 나타난 영화 <반두비>와 최근의 나타난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방가방가> 영화와 <막돼 먹은 영애 씨>라는 드라마를 같이 살펴보고 최근까지 한국인들이 방글라데시인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그러나 영화와 드라마에는 작가의 주관적 의도가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소통의 쉬운 미디어로 네티즌들의 리뷰도 분석하는 것이다.

3. 연구이론과 방법

1)오리엔탈리즘

오리엔탈리즘은 원래 유럽의 문화와 예술에서 나타난 동양적 경향을 나타냈던 말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동양과 서양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동양에 대한 서양의 우월성이나 동양에 대한 서양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서양의 동양에 대한 고정되고 왜곡된 인식과 태도 등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말로 쓰인다. 한 문명이 그들의 시선으로 다른 문명을 주변화한 타자 만들기의 대표적인 사례가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오리엔탈리즘은 푸코(Foucault)의 '담론(Discourse)' 개념에 근거하고 있으며, 담론은 대상을 특정 방식으로 인식하고 구성하도록 하는 주체 외부의 실천의 산물이다(천경갑, 오창호, 2003,293 쪽).[12]오리엔탈리즘이라는 개념이 '서양의 동양에 대한 인식'이라는 넓은 의미로 쓰이게 된 것은 1978 년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adie Said, 1935~2003)가 발간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에서 시작한다.

[12] 문소영, 2006, 「한국영화의 나타난 오리엔탈리즘 연구 -영화 <파이란>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여성학연구』, 제 16 권 제 1 호, 269 쪽.

이 책에서 사이드는 서구 국가들이 비서구 사회를 지배하고 식민화하는 과정에서 동양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확산되었는지를 분석했다.

오리엔탈리즘의 근본적인 개념은 동양과 서양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존재론적, 인식론적 구분, 즉 흑백놀리이다(said, 1978/2005, 17-8 쪽).[13]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을 동양과 서양이라는 인식론적인 구별에 근거한 사고방식이자,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며 억압하기 위한 서양의 제도 및 인식으로 정의한다. 서구 국가들은 동양은 비합리적이고 열등하며 도덕적으로 타락되었지만, 서양은 합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성숙하고 정상이라는 식의 인식을 만들어오면서 동양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해왔다. 이러한 인식은 문학 등의 예술 작품이나 여행기, 동양의 언어와 역사, 지리, 문화에 관한 학문과 연구를 통해 형성되고 확산되었다.

오리엔탈리즘은 서구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시키는 수단일 뿐 아니라, 그에 앞서 식민지 지배를 낳고 정당화하는 근원적인 힘이다. 오리엔탈리즘은 서양과 동양의 경계와 차이를 끊임없이 확장한다. 오늘날에도 다양한 매체와 문화양식들을 통해 동양을 열등하고 착취 가능한 대상으로 파악하는 오리엔탈리즘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으며, 근대의 학문과 지식들을 통해 동양인에게도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이로써 오리엔탈리즘은 동양과 서양을 구별짓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양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기능을 한다.

“오리엔탈리즘은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한 개념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이런 포괄성은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개념이 서양과 동양의 문제뿐만 아니라 동일한 영역 내에서 우위에 있는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타자화하고 담론을 생산하는가를 분석하는데에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한다. 피터바그는(Piterberg, 1996) ‘내부 오리엔탈리즘’ 개념을 이용해 현대 중동에서 영토국가로 간주되는 공동체들에 의해 역사를 가르치고 기술하는 역할을 학교 교과서와 다쿠멘타리 필림을 텍스트로 하여 비교 연구를 통해 관찰한다. 피터바그의 연구는 이스라엘 역사서술이 어떻게 주류인 서구 출신 유테인의 역사적 경험을 주변화 하여 보여주는 주를 분석한다”.[14]

---

[13] 문소영, 위의 글, 269 쪽.

[14] 문소영, 위의 글, 271-272 쪽.

“오리엔탈리즘은 서양의 이데올로기적 환경에서 동양의 식민지들을 재현하고 서양의 시선으로 동양의 문화적 전통을 표상한다. 이 것은 서양의 재국주의적 시각에 의해 동양을 평가하고 이해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정의되고, 뒷받침되고, 강화되어온 하나의 방법이다(shin, 2004,p 30). 오리엔탈리즘의 논의 속에서 동양과 서양은 허구의 구조일 뿐이다. 이러한 이분법은 흑백놀리며 차별적인 패권주의이다(정정호, 2002,192-3 쪽)”.[15]

2) 종족적 민족주의

한국사 학계에서 민족에 대한 논의는 주로 영토, 문화, 언어, 종교 등에 치중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어느 면에서 그것은 식민지와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민족적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의 부산물이었다. 민족주의가 조국 분단의 고착화에 맞서는 저항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하는 한, 그것은 나름대로의 의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족 구성의 객관적 측면을 강조하는 민족주의는 이제 남과 북 모두에서 저항 이데올로기로서의 건강성을 상실하고 체제 이데올로기로 변질되어 버렸다. 한때 그것이 건강했다고 해서 지금도 건강하고 앞으로도 건강하리라는 판단은 그야말로 반역사적 판단일 뿐이다. 특히 언어, 문화, 혈통 등 민족 구성의 객관적 측면을 강조하는 언어적 종족적 민족주의는 19 세기 후반 유럽의 우익 운동에서 잘 드러나듯이 그 이데올로기적 보수성을 여실히 입증한 바 있다.

“민족주의의 정의와 역할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다양한 주장이 존재하며 그 긍정적 혹은 부정적 기능은 여전히 정치·역사학계의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 하지만 민족주의는 그것이 갖고 있는 통합적 기능을 인정한다 해도 본질적으로 '배제'를 전제로 한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16] “‘종적적 민족주의’는 혈연이나 언어와 같은 객관적인 요소(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준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객관적인)에 기반한 민족주의이다. 종족적 민족주의는 혈연과 같은 공동체의 일차적 연대감이 중요하다”.[17] 종족 민족주의는 공통된 문화, 언어, 종교, 역사적 경험, 경우에 따라서

---

[15] 문소영, 위의 글, 271 쪽.

[16] 현승수, 2011, 「종족 민족주의에서 혁명적 민족주의로— 조지아 국가 형성 과정 연구 —」, 『한양대학교 유라시아의 체제전환 20 년: 국가건설과 경제발전』, 104 쪽.

[17]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573.

혈통의 공유를 강조. 집단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민족주의와 분쟁을 연계지어 연구한 스나이더(Jack Snyder)는 종족 민족주의를 문화적으로 단일한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타자를 배제하는 유형으로 표현했다.

한국학 연구자 신기욱 교수는 2006 년에 스탠퍼드대 출판사에서 출간됐던 한민족주의에 관한 *"Ethnic Nationalism in Korea: Genealogy, Politics and Legacy"* 라는 책을 썻다. "신교수는 이 책의 서문에서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혈연에 기초한 단일민족주의 내지는 의식"이라고 썼다. 그는 "한국인들이 동일한 혈통에 바탕한 민족정체성을 발전시키게 된 역사적 과정을 확인하고, 이런 종족적 민족정체성이 한국의 정치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보고자 이 책을 썼다고 한다. 그는 19 세기 말에서 20 세기로 넘어오던 시기에 한국의 지식인들은 범아시아주의와 민족주의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1905 년 을사조약과 같은 국가적 위기라는 상황 때문에 민족주의가 범아시아주의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또 1920 년대에서 30 년대에 걸쳐 한국인들은 민족개념과 민족주의를 발전시키고 있었지만,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인종주의, 즉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은 인종이 같다면서 동화정책을 추진하면서 도전하였고, 민족보다는 계급이 우선한다는 국제사회주의도 도전해왔다고 보았다". [18]

"그리고 "민족주의의 승리는 숙명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특수한 요인들과 사건들의 산물이었다"고 설명한다. 1905년 을사조약, 일본의 식민지인종주의 강요, 국제사회주의의 도전 등에 맞서면서 "민족의 종족적, 집단주의적, 유기적인 본질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인들은 외부의 위협에 맞서 한민족의 내부적 연대와 집단의식을 고취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그는 한국인들에게 종족 동질성에 대한 태도와 믿음은 아직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완전히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에게 여전히 많은 영감과 연대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 또는 한국의 민족주의가 시민적 성격을 띤 것이라기보다는 종족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종족적 민족주의는 19세기 말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항하여 집단의식과 내부연대를 고취하는 것이 절박했던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한민족의 독특성을 부인하는 식민지 인종주의에 대항하는 데 효과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을

[18] 박찬승, 2009, 「한국 민족주의와 종족적 민족주의의 해석: 신기욱, "한국 민족주의의 계보와 정치"」, 『역사와 현실』 통권 72 호, 339-341 쪽.

지적했다”.[19]

“그런데 이와 같은 종족적 민족주의는 긍정적인 측면 외에도 부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는 점을 저자는 지적한다. 그는 강한 단일민족주의는 통일과정의 초기 단계에서는 두 체제의 부드러운 통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좀 더 민주적이고 시민적인 민족정체성을 형성해야만 통일 이후 어떤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출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종족적이고 전체적, 유기적인 민족주의는 자칫하면 파시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20]

“신교수는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의 종족적 민족주의가 한국에 물밀듯 밀려오는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그는 이제 한국인들은 종족적 한국 동포가 아닌 민주적 정치조직의 평등한 시민으로서 타 민족과도 함께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한국사회는 이제 문화적, 종족적 다양성과 관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21]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두 개의 영화, 한 개의 드라마, 그리고 이들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을 분석하겠다.

3)연구 방법론

한국에 외국인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175 만 6031 명 거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을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이 거주하는 기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다. 최근에 외국인 학생들도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 외국인 체류의 형태를 보면, 내국인과의 국제결혼, 외국인 유학생, 중국동포 조선족, 불법체류 외국인 등 있습니다만, 대부분 노동자이다. 그리고 지난 10 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후 외국인 글로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수도

[19] 박찬승, 위의 글, 341-343 쪽.

[20] 박찬승, 위의 글, 343 쪽.

[21] 박찬승, 위의 글, 343 쪽.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등 외국인들이 유입한 상태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과 고정관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인터넷이나 커뮤니케이션 발달하여 외국인에 대한 인식도 어느정도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미디어 중 대중 매체 텔레비전이 제일 중요하며 텔레비전에 나온 드라마, 영화 등에 역할이 제일 크다. 특히 외국인에 대한 편견적인 묘사가 영화와 드라마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영화와 드라마를 즐겨 보는 한국인의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한국의 지상파 드라마와 영화에서 한국사회의 인종적 소수자인 외국인 중에 방글라데시인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내용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① 한국 영화와 드라마에서 방글라데시인들이 어떤 식으로 묘사됐는가?
② 외국인이 낱아난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서 현시점의 인기가 많은 미디오로써 인터넷에 표현된 방글라데시에 대한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
③ 방글라데시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으로 한국인의 모습을 어떻게 보인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지금까지 촬영했던 한국 영화 및 드라마에 나타난 방글라데시인의 성격 또는 행동을 통해 한국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연구목적 중 하나이다. 그 외에도 한국사람들이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코멘트 및 리뷰를 통해 방글라데시인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연구한다.

이런 연구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내용으로 연구하였다.

연구방법	
1차 자료	2차 자료
영화 및 드라마의 다이얼로그	문헌 조사
<반두비>,<방가방가>,<막돼 먹은 영애씨>	인터넷을 통해 관련 자료 고찰
Naver, Daum 에서 영화, 드라마 리뷰, 코멘트 분석하기	정부의 각종 통계자료 고찰

첫째, 1 차 자료로 <반두비>, <방가방가>, <막대 먹은 영애씨>라는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다이얼로그와 성격을 분석한다. 그리고 네이버와 다음이라는 한국에 인기가 많은 웹사이트에서 네티즌들의 반응을 분석한다.

둘째, 인터넷을 통한 문헌 조사를 통해서 관련 자료를 고찰한다. 그리고 본 논문에 필요한 통계나, 정보를 정부 기관에서 받고 연구를 한다.

제 2 장 한국에 거주하는 방글라데시인 현황

1. 방글라데시의 소개와 한-방 관계

방글라데시는 미얀마와 국경을 접하고 인도 북동부에 있는 남부아시아의 위치한 나라이다. 1947 년까지 방글라데시는 인도가 영국 식민지일 때 벵골주의 일부였다. 인도 독립 시,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 동파키스탄 (현재 방글라데시)과 서파키스탄 (현재 파키스탄)으로 분리되었다. 1971 년에 9 개월 유혈 독립전쟁을 통해 서파키스탄으로부터 방글라데시가 독립하였다. 독립 이후에도 정치적인 불안으로 인해 경제 발전이 더뎌 아직까지 후진국이라고 불수 있다. 147,570 ㎢ 에 불과한 국토에 인구 밀도 세계 1 위인 방글라데시의 인구는 약 1 억 5850 만 명이다.[22] 1 인당 GDP 가 1033 달러(세계 155 위)로 세계 최빈국 수준으로 지금까지도 절대적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23]

이와 같은 경제적 빈곤상태로 인하여 방글라데시에서 고등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취업이나 생계유지가 곤란하기 때문에 해외취업에 대한 기대가 지속적으로 높은 편이다. 주로 중동아시아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인력이 대부분이며 유럽, 미국, 일본, 싱가포르, 한국에 대한 관심 및 기대가 많다.한국은 1972 년 5 월 12 일 방글라데시를 정식 승인하였으며 한국과 방글라데시는 1973 년 12 월 대사관 설치 등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한국은 1975 년 3 월에 수도 다카에 상주대사관을 설치하였으며 방글라데시는 1987 년 2 월에 한국에 상주대사관을 개설하였다.

과거 농업에 의존했던 방글라데시는 오랫동안 빈곤국가로 인식되어왔지만 1990 년 이후 의류산업 주도의 수출활성화에 성공하면서 인정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면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오고 있다. 한국은 방글라데시에 투자한 나라

---

[22]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P.POP.TOTL

[23]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4, International Monetary Fund. Database updated on 7 October 2014. Accessed on 8 October 2014.

중에서 규모가 5 위이다. 한국-방글라데시 무역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1980 년대까지 저조했던 양국간 교역과 투자는 1990 년대 이후 서서히 확대됐고 2000 년 이후는 대방글라데시 원조가 빠른속도로 증가하였으며 2007 년부터는 양국간 협약에 따라 방글라데시 근로자들의 한국 내 고용이 시작되었다. 또한 양국 정부는 양국 국민들의 상호 이해와 우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 및 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국에 방글라데시인이 유입되기 시작한 시기는 1988 년 올림픽부터이다. 그때 유입된 외국인 또는 방글라데시인들은 대부분 불법 체류자로서 오랫동안 거주하였다.

2. 한국에 방글라데시인의 현황

한국에서 지난 1990 년대 초 본격적으로 외국인 노동 인력 유입되기 시작된 이후, 방글라데시 국적의 이주 노동자들도 한국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 관광자, 결혼이민자 등 다른 종류의 목적을 가진자들도 한국에 들어와 현재 (2014 년 9 월)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인의 수는 약 14318 명이며 그 안에는 불법 체류자인 4382 명도 포함되어 있다.

1990 에서 2014 년까지 한국에 들어온 방글라데시인의 인구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1)연도별에 따른 국내 체류 방글라데시인 현황(단위: 명)

년	전체	합법체류	불법체류
1990	1060	978	82
1995	2700	2689	11
2000	5925	5400	525
2005	15116	14955	521
2010	9317	8906	411
2014(9 월)	14318	9936	4382

(출처: 2014 년 9 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통계월보)

위 표에 따르면 1990 년 에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인은 1060 명에서 24 년만에 14318 명까지 올라가 약 13% 가까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가 82 명에서 4382 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90 년대에 비하여 2014 년대에는 불법 체류자가 7.7%에서 3.2%으로 감소하는 것이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살고있는 방글라데시 체류자격별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2) 체류자격에 따른 국내 체류 방글라데시인 현황(단위: 명)

구분	계		남성		여성	
	전체	불법체류	전체	불법체류	전체	불법체류
계	14318	4382	13668	4292	650	36
비전문취업(E-9)	9783	1801	9728	1789	55	12
사증면제(B-1)	1792	1789	1753	1750	39	39
유학(D-2)	594		503		91	
단기방문(C-3)	380	310	348	296	32	14
동반(F-3)	364		94		270	
결혼이민(F-6)	297		252		45	
기술연수(D-3)	184		183		1	
기타	924	482				

(출처: 2014 년 9 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통계월보, 항목별로 재정리)

위 표에 따르면 남성의 수가 여성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체류자격별로는 비전문취업 자격 체류자가 9783 명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은 “취업” 자격 외에 다른 체류자격군들을 살펴보면, 최근의 한국대학 및 연구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 ‘유학’ 자격이 594 명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으며, 또 국제결혼 등의 증가로 결혼이민 자격을 가진 체류자도 297 명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방글라데시가 아직 최빈국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단기방문' 자격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380 명으로 다른 나라들에서 오는 단기방문자수에 비해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불법체류자와 관련하여, 2014 년 기준 전체 체류자 14,318 명 중 불법체류자 수는 4,382 명으로 전체의 약 30.6%로, 과거 2002 년에, 불법체류자 비율이 85.2%[24] 였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의 법률 시행으로 인해 기존 불법체류 상태의 외국인들에 대한 합법적 고용이 가능해지고, 노동 기본권 보장 등의 처우가 개선된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25] 본 제도는 2004 년에 시행되고, 방글라데시의 경우 2007 년 6 월부터 정식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또한, '사증면제' 자격의 경우 전체 1792 명 중 1789 명로 99.8%에 달하는 수가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나, 사증면제 협정의 적용을 받아 입국한 경우의 거의 전체가 불법체류자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단기방문' 자격의 경우도 전체 380 명 중 310 명이 불법체류자로, 81.5%의 불법체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두 경우 모두 최초 입국 시에는 사증면제 또는 단기방문 비자로 비교적 쉽게 입국하였다가 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계속 국내에 체류하여 취업하는 경우로 판단할 수 있다.

---

[24]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연보』, 2002 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체류 외국인 인력 18,989 명 중 불법체류자는 16,170 명으로 불법체류자 비율은 85.2%로 나타났다.

[25] 이준호, 2004,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에 대응한 외국인 근로자 선교전략 고찰: 재한 방글라데시 근로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8-27 쪽.

3 장 한국 영화와 드라마에 나타난 방글라데시인

1. <반두비>의 카림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입국하여 열악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카림은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주노동자이다. 컨테이너 창고 안에서 생활하는 카림은 방글라데시에 있는 아내 트리샤에게 생활비를 송금해주어야 하는데 1 년 동안 일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장은 고의로 공장의 부도를 낸 후 카림을 피하고 있고, 인권단체도 도울 방법이 없다고 했기에 카림은 혼자서 사장의 집을 찾아다닌다. 그리고 카림이 현재 일하고 있는 공장도 카림이 불법체류자가 되자 그것을 악용해 카림의 임금을 깎아 그를 재고용한 상황이다.

영화의 여자 주인공인 민서는 엄마는 애인을 챙기느라, 친구들은 학원에 다니느라 외톨이가 되어 외롭지만 누구보다 자립심이 강한 여고생이다. 여름방학을 맞아 원어민 영어학원 등록을 위해 갖가지 알바를 해보지만 수입은 신통치 않다. 어느 날, 우연히 버스에서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카림이 흘린 지갑을 줍게된다. 카림은 민서를 따라 내리게 되고 민서에게 경찰서로 가자고 했다. 그런데, 민서는 카림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하고 결국 카림에게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고 제안을 한다. 카림은 돈을 찾기 위해 자기 전 직장 사장 집을 함께 찾아달라고 부탁한다.

그렇게 허무하게 헤어지지만 둘은 우연히 경찰서에서 만나게 됐고 둘의 관계를 따라 두 사람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흘러간다. 다른 문화를 가진 두 사람이 서로 사랑에 빠지는데 민서가 잘못될까봐 걱정하는 민서엄마가 신고를 하면서 카림이 출입국관리소에 잡히게 됐다.

<반두비> 영화에서는 방글라데시인 또는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다. 인물 분석은 카림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장면 1 (00: 15:01)

카림: 전 말렸을 뿐이에요.

싸웠던 아저씨: 야. 거짓말 하지 마. 니가 나 올라타고 때렸잖아. (알바생에게) 안 그러냐?

편의점 알바생: 네, 저의 돌이 말다툼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키워 들어서

(알방생 편의점 사장님 전화 받고 경찰에게 죄송하다는 말씀하고 잠깐 밖에 나갔다)

카림: (알바생에게) 비겁해.. 거짓말은..

경찰: 알았어. 알았으니까..여권 줘. 여권 몰라? (여권 보고) 3 년 다 됐네. 고용허가제 때 왔지? 체류기간 한 달도 안 남았고..이름이 모…하.. 아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거?

카림: 모스토파 빈 하디 카림. 모함마드 셀림 모스트파 빈 하디 카림.

싸웠던 아저씨: 형사님 확 추방 시켜 버려요 얘들이 우리 일자리 뺏어간다니까.

경찰: 조용이 좀 해요.

일부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의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실이지만 방글라데시와 같은 후진국에서 온 외국인에 대해 불신하고 경계심을 갖는 것도 한국사회의 한 문제이다. 카림의 여권을 보고 했던 경찰의 대화는 한국인의 이런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또 경찰이 카림의 이름을 부를 때 이름이 너무 어렵다고 하면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작가는 이주 노동자로 온 카림을 일으키고 편의점에서 싸웠던 아저씨는 방글라데시와 같은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차지한다는 한국 사람의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장면 2 (00:19:31)

민서: 이 맛있는걸 왜 안 먹어? 안 먹으면 돼지 뭐 어때서 (_혼잣말_)

카림: 반말하지 말아요. 기분이 나빠요. 우리 말도 반말 존댓말 다 있어요.

민서와 카림이 처음으로 같이 식사를 하는 장면에서 카림이 돼지고기를 안 먹어서 민서는 왜 안먹는지를 물으면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방글라데시인들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것이 한국 시람들에게 이해가 안 된 듯하다. 여기에서 작가는 무슬림 사람의 문화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한국인들의 인식 또한 한국인들이 동남아 나라에서 온 방글라데시인들을 낮게 생각하는듯한 태도를 반말하는 것도 보여 주는 것이다.

장면 3(00:26:15)

민서: 가까이 오지 마. 떨어지라고 저만큼 3m 쯤. 한국말 몰라요?

이주노동자 카림의 소원을 들어준 민서가 카림와 함께 전 직장 사장을 찾으러 간다. 그때 카림이 민서 옆에 걷다가 민서가 카림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한다. 민서는 검은 피부색 외국인 옆에서 걷는 것조차 신경이 쓴다. 이 장면에서 작가는 피부 색이 어두운 사람을 낮게 바라보는 한국인의 비인간적인 태도를 보이주고 있다.

장면 4 (00:29:18)

민서: '때'는 무슨 색깔이야?

카림: 너랑 똑같아.

민서: 정말?

버스 안애서 카림을 만나던 민서는 처음에 옆에 걷는 카림에게 "3m 떨어져"라고 소리치는데 다음에 조금 친해진 후에 다른 나라 사람과 문화를 잘 모르는 민서가 카림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

장면 5 (00:58:00)

기홍: 아무리 민서가 뛰는 애지만, 저것 좀 위험하지 않아? 요새 그, 외국에서 온 애들 사고 많이 치잖아. 그리고 가출한 여고생 강간하고 죽였다는 뉴스도 있고.

민서는 엄마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카림을 데려가자 민서 엄마의 남자친구 기홍(박혁권 분)은 귓속말로 민서에 대해 걱정을 한다. 민서 엄마의 남자 친구는 한국의 외국인들이 위험하다고 이야기한다. 여기에서 작가는 방글라데시인을 포함한 외국인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듯한 한국인의 인식을 이 영화에서 보여 주려고 했다. 신문이나 TV 를 통해서도 외국인에 의한 범죄, 특히 불법체류자들의 범죄 문제를 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기홍의 말도 바로 이러한 뉴스보도를 근거로 민서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대화 속에서 기홍은 인종주의적 발상으로 외국인들을 잠재적 범죄자 혹은 범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는 표현하고 있다.

장면 6 (1:1:40)

민서: 왜 그래?

은주(민서 엄마): 아니다. 어제 누구니?

민서: 친구.

은주(민서 엄마): 어느 나라 사람이니? 뭐 하는 사람인데?

민서: 그 남자한테도 관심이 있어? 소개 시켜 줘? 러시아 사람이면 어떻고, 흑인이면 어때? 마음을 열어, 마음을. 기홍 씨도 잘 생겼대.

이 대화를 통하여 작가가 한국인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 피부색이 어떤가로 생각하고 외국인을 바라보는 것을 그리려 했다. 한국인들이 피부색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민서의 엄마는 방글라데시 노동자 카림에 대한 의심을 표현했다.

장면 7 (1:5:35)

민서: 사람이 왜 그래? 쫌생이 같애. 답답해 보여. 하인즈 좀 봐. 한국생활 즐기잖아. 후진국에서 와서 그런가?

카림: 그래….나 못사는 나라에서 왔어..그래서 즐길줄 몰라.. 그럴 시간도 없어.. 하지만 너희들 얼마나 웃긴지 알아?

힘센 백인들에게 아부하고 우리같은 외국인 무시하고 … 정말 비겁해 동남아에 가서 아무데나 씨뿌리고..여자들 울리고……아까 그 백인 뭐라고 한줄 알아? 스윗. 너희 창녀같다고 하는거야

민서: 너 여기 솔직히 왜 왔냐? 돈 벌려고 온 거 아냐? 부자 되겠다고 온 거 아니냐고? 부러우면 그냥 부럽다고 해. 치사하게 뒷다마나 까지 말고…….

어느날 민서는 카림에게 영어 학원 원어민을 소개 시켜 준다. 그러나 카림은 원어민과 이야기한 후에 좋지 않은 인상을 받게 된다. 윗 대화는 그 때 민서가 카림에게 한 말이다. 이주노동자를 향한 극단적인 편견을 갖게 한 민서의 말에 들어가 있는 인식은 '후진국에서 돈 벌러 온'것이다. 극빈한 나라에서 돈을 벌러 온 이주노동자라는 인식에 붙여 방글라데시인을 하위주체로 형상화하는 것은 이 대화를 통하여 판단된다. 방글라데시인에 대한 민서의 인식은 '후진국에서 돈 벌러 온'이라는 수식을 통해 비난의 언어로 발화된다. 그들은 민서에게는 '답답한 쫌생이'인 것이다. 민서가 카림에게 원어민처럼 뻣뻣하다고 한다. 이 대화로 한국인들이 흑인과 백인을 어떻게 인식하는 그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방글라데시에서 온 카림과 미국에서 온 하인즈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보인다.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입국하여 일하는 카림은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주노동자이다. 컨테이너 창고 안에서 생활하는 카림은 방글라데시에 있는 아내 트리샤에게 생활비를 송금해주어야 하는데 여전히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장은 고의로 부도를 낸 후 카림을 피하고 있고, 인권단체는 도울 방법이 없다고 했기에 카림은 혼자서 사장의 집을 찾아다닌다. 카림이 현재 일하고 있는 공장에서는 카림이 불법체류자가 되자 그것을 악용해 카림의 임금을 깎아 그를 재고용한다.

민서와 카림이 처음 만난 버스에서 카림이 앉은 옆자리가 비어있고, 카림이 창가 쪽으로 다가가 앉으며 민서가 앉을 수 있는 충분한 자리를 내어주는데도 민서는 카림의 옆에 앉지 않는다. 검은 피부색을 가진 외국인을 후진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옆에 앉는 것도 한국인에게는 불편한 것으로 보이게 된다. 그리고 민서가 카림의 친구가

된 후에 버스와 지하철에서 민서가 카림 옆에 앉은 것을 보고 한국 사람들은 이상한 시선을 보이게 된다.

옷 가게에서 피부색깔이 다른 카림에게는 거스름돈조차 직접 손바닥에 건네주기보다는 앞의 선반에 내려놓는 여자는 한국인의 편견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에 미국인은 어떤 말을 해도 한국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친절한 태도를 보여준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도 그려졌다.

편의점에서 취한 아저씨와 알바생이 싸우는데 카림이 한국인 간에 싸움을 막기 위해 간섭했지만 외국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카림은 경찰서로 글려가 시련을 당한다. 특히 경찰이 방글라데시 여권을 보면서 체류기간이 얼마 안 남은 카림을 모욕하는 것이다.

카림은 독실한 무슬림이기 때문에날마다 열심히 기도도 한다. 한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종교를 지키는 것이 힘들지만 카림이 고향에 있을 때처럼 한국에서도 종교를 잘 지킨다. 카림이 깨끗한 물로 씻고 뚜삐란 모자를 쓰고 메카를 향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한국에서 익숙하지 않은 무슬림의 모습을 보여준다. 또 카림은 종교 때문에 돼지 고기와 술을 안 먹는데 이러한 문화마저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한국인의 모습을 영화를 통해 그려내고 있다.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해 고향에 있는 부인에게 돈도 보내지 못해서 카림의 아내가 카림과 해어진다. 한국에 와 있는 방글라데시 노동자 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랜 시간동안 타국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 나라에 잃어버리는 것이 많다. 민서 집에 방문하러 갔을 때 카림이 선물로 방글라데시 모자를 가져 가고 또 민서를 위해 방글라데시 음식도 요리한다. 또, 민서에게 방글라데시의 문화를 가르쳐 준다. 자기 문화를 사랑하는 카림은 손으로 먹을 때 민서에게 그렇게 먹는 것이 불편하지 아니냐고 질문으로 한국인이 다른 나라 문화를 잘 모르며 이상하게 보는 것을 영화를 통해 그려내고 있다.

2. <방가방가>의 알리

“방가방가”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얼마나 한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이다. 한국 국적으로 귀화했지만 한국이과 다른 모습 때문에 한국인 방대식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은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외국인 노동자처럼 흉내를 내고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친구 용철과 함께 어느 나라가 좋을지 생각해 해보며 부탄이라는 나라를 선택했다. 방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부탄 사람으로 의자공장에서 취업을 했지만 같이 일하는 방글라데시인 알리, 우즈벡인 마이켈, 네팔인 찰리, 필리핀인 라자, 베트남인 여성 노동자 장미라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모두 방가를 무시하며 친구처럼 지내지 않는다.

그러다 외국인노동자들이 외국인노래자랑 대화에서 비디오카메라와 상금을 타려는걸 알게 되고 방가도 노래자랑 대화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결국 친구인 용철과 함께 계획을 세우게 된다. 불법체류자 외국인 노동자들은 출입국관리소를 무조건 피해야하는데 용철과 방가의 계획은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온 것처럼 하면서 장미와 기타 외국인노동자들을 구하는 것으로 결국 연기를 해서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용철과 방가가 옛날부터 모은 돈으로 산 집이자 가게인데 장사가 잘 되지 않는 노래방은 방가의 외국인 동류들을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만 손님으로 온다는 노래학교로 바뀐다. 그러다 마지막에 알리를 통해 방가가 주민등록증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여기서 외국인노동자들은 자기들도 이게 필요한다며 만들어달라고 한다. 같이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친구라고 생각하는 방가의 친구 용철은 그걸 이용해 돈을 모으자고 하며 신고를 하게 되고 외국인노동자들이 모두 경찰서에 잡혀 가는데 결국 방가는 경찰서에 가서 사정을 하며 외국인노동자들과 함께 노래자랑만 나가게 해달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자기 잘못을 이해한 용철도 외국인노동자들은 출입국관리소에서 도망 치는 것을 도와 주고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영화이다.

장면 1 (part2--00: 8:40)

알리: 마이켈, 일할 준비해.

마이켈: 천천히 하자.. 우리가 여기 돈 벌러 왔지..일하러 왔냐?

알리: 돈 벌을리면 일 열심히 하라고 섹기야….

마이켈: 하는 말도 재판장의 똑같아…

알리: 이 우즈벡 새끼가 있…

마이켈: 한국어 너무나 사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알리와 우즈벡에서 온 마이켈은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데 마이켈은 일을 잘하지 않아도 상관없이 돈만 벌고 싶어한다. 그러나 알리는 일이 적당하게 하고 돈을 버는 사람이다. 알리는 대표적인 방글라데시인들의 마음을 갖고 있다. 이 대화로 인해 방글라데시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장면 2 (part 6 -00:6:37)

알리: 나도 이거 만들어 줘.

방가: 뭘?

알리: 나도 이거 만들어 달라고. 나도 이런 거 있으면 주만 안 된다. 여권도 만들어 주어면 카밀라 데려 올 수 있다. 카미라랑 한국에서 전화로 결혼했다. 카미라 얼굴 한번도 못 봤다. 나 카밀라 너무 보고 싶다. 보고 싶어서 죽겠다.

한번도 출입국 사람에게 잡히지 않은 방가를 의심한 알리가 드디어 방가가 한국인임을 알게 된 후에 방가에게 알리가 자기 감정을 표현했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보통 가족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전화로 결혼하고 아내의 얼굴도 직접 한 번도 못 보는 알리의 이 이야기를 통해 한국에 있는 불법 체류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모습이 관찰된다.

이 영화에 방글라데시 출신 알리(모하메드 아사둣자만 칸)는 5 년 동안 의자공장에서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온 노동자들과 불법 외국인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한국 공장에서 5 년 동안 일하고 많은 돈 벌었는데 공장 사장님이 그 돈을 보증금이라고 내지 않았다.

공장 사장님이 보증금으로써 돈은 한국을 떠날 때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지만 사실은 불법 외국인 근로자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추방될 수 있어 사장들에게서 그 돈을 못 받아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또 방가의 친구 용철은 한국 여권을 만들어 주기로 했는데 여권을 만들어 주지 않고 그들 이민국에 신고한다. 이렇게

방글라데시인들과 다른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속이는 상황은 역시도 많은 사실은 영화를 통해 그러내고 있다.

알리는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잘 부른다. 그래서 외국인 노래 대회에 신청하고 같이 일하는 외국인들의 팀장이 된다. 그리고 전화로 결혼한 알리는 한번도 부인의 얼굴을 못 봤지만 아내를 너무 사랑한다. 불법 근로자이기 때문에 고향에도 못 가고 가족도 못 만나는 알리가 한국을 감옥처럼 느낀다. 네팔에서 온 찰리가 이민국에서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며 울고 있어서 "한국인 앞에 울지 말라고" 또 "우리가 더러운 동남 아시아인"이라고 표현했던 알리를 통해 한국인의 동남아 사람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려고 했다.

3. <막대먹은 영애 씨>의 스잘

케이블채널 tvN 의 정환석 감독의 '막돼먹은 영애씨'라는 드라마는 30 대 노처녀 이영애(김현숙 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직장인들의 현실적인 애환과 30 대 여성들의 생각을 대변해주는 내용을 가진 드라마이다. 한국 사회에서 못생겼다고 여겨지는 외모의 영애 씨는 집에서는 얼른 시집가라고 구박을 받고, 회사에서는 외모로 성격과 능력까지 평가받으면서도 이 막돼먹은 세상을 열심히 온몸으로 부딪혀 가면서 살고 있는 30 대 싱글 여성 직장인이다.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의 근무지인 낙원종합인쇄사에서 같이 일하는 영애 씨의 동료 방글라데시 청년 스잘은 외국인 노동자이다.이 드라마에 스잘은 이주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보다 더 잘 직장 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낙원종합인쇄사에서 일하고 있는 스잘은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괄시를 받는다. 외국인 노동자의 줄임말인 '외노자'라고 불리며 손가락질 받는 스잘을 본 영애는 분노를 감추지 못한다. 피부가 어두워서 저녁에는 안보이겠다는 낯선이들의 조롱은 반성과 여운을 남겼다.

장면 1

강예빈: 기웅씨 이거 핸드크림이에요, 저번에 저 다쳤을때 부축도 해주시고 고마워서 샀어요.

한기웅: 필요없는데.. 돈 아껴서 영애누나 돈부터 갚으셔야되지 않아요?

강예빈: 이거 비싼거 아닌데.. 열라 싼데. 엔 뭐야.. 친절했다 싸했다

나랑 밀당하자는건가?

스잘: 누나, 왜 형한테 선물 줘요? 혹시 웅형 좋아해요?

강예빈: 아니 좋아하기는 무슨.. 아 근데 나도 남친 없고 웅씨도 여친이 없는데 좋아해질수도 있지.

스잘: 근데 웅형 여친 있는데?

강예빈: 뭐? 여친 있어? 그런말 못들었는데?

스잘: 아 그게 나만 알고 있으래요. 그니까 누나도 꼭 비밀로 해줘요.

강예빈: 정말? 어떤 애인데?

스잘: 음…긴 생머리에 예쁘게 생겼어요.

강예빈: 짓, 난 머리 안길고 안예쁜가? 뭐 하는 앤데?

스잘: 대학교 신입생이에요.

강예빈: 그럼 20 살인데.. (한숨) 됐다 어리다…쳇 아니 뭐 어리면 단가?

스잘: 외제차 몬데요.

강예빈: 뭣? 외제차? 어린데 열라 부잔가보다…

그것도 모르고 삽질했잖아. 아 짜증나. 이거 스잘 너 그냥 가져.

윗 대화는 낙원종합인쇄사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강예빈이 같은 회사 직원 기웅씨를 좋아해서 선물 주시고 싶을 때 하는 말이다.이 대화를 통해 스잘에 말로 한국 사회를 풍자하는 스잘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다.똑같은 헤어스타일,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 한국 남자들, 외제고급 승용차를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 등 한국인의 특정을 보이게 된다.

장면 2

스잘: 누나 천아씨 어디있어요? 인크값 결제한거 영수증 줘야되는데?

미란: 아 인크값 결제한거 영수증 줘야된다고? 아 책상위에…책상위에 올려놔. 내가 이따가 전해줄…아 전해줄게… 아(밖으로 나가면서) 배 아빠…

(스잘이 책상쪽에 걸어가서 컴퓨터 화면을 본다)

(컴퓨터 화면에 있는 글을 읽는 목소리): 외국회사에 입사한지 3 주째. 커피를 달고 살 만큼 피곤하지만. 더 열심히. 화이팅!

스잘: 외국회사? (비웃으면서) 핫 나 참…

(컴퓨터 화면에 있는 글을 읽는 목소리): 인도에서 스카웃된 IT 천재 스잘 말라쿵과 업무중 한컷~

스잘: 핫(비웃는 소리)ㅅ

선아: 엇 지금 뭐하시는거예요! 왜 남의 컴퓨터를 보세요?

스잘: 죄송해요, 영수증 넣다가…근데 인도 IT 천재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아: 그게 사실 여기 다니는게 창피해서 친구들한테 외국회사 다닌다고 뻥쳤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비밀로 해주실거죠?

스잘: 그럼요, 걱정마세요. 근데 제가 좀 천재같이 보이긴 하죠? (웃으면서 방을 나간다)

선아: 아…네… 뭐(스잘이 나간 후)아 뭐래 장난없어

(다른 방에 온 스잘의 혼잣말) 스잘: 어~ 천아씨도 참 허세 장난이 아니네

윗 대화는 회사에서 영수증을 데다가 동류 천아씨의 컴퓨터에 나온 말로 관심을 보여 주는 상태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이다. 여기서도 허세떠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장면 3

강예빈: 근데 스잘아, 기웅씨 여친이 있는거 맞아?

스잘: 엣?

강예빈: 아니 어제도 남아서 술마셨다면서.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기도 바쁠텐데 통만나는 것 같지도 않고 혹시 헤어진거 아니야?

스잘: 단기어학연수갔대요.

강예빈: 어학연수? 그럼 우리나라에 없겠네.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데 혹시 둘의 사이쯤 멀어진거 아니야?

스잘: 아니예요. 영원한 사랑의 증표로 커…커플링도 한대요.

강예빈: 영원한 사랑? 칫 근대 왜 몰래 사귄데?

스잘: 누나 제가 좀 도와줄께요.

강예빈: 후훗 고마워 스잘~. 근데 스잘, 그 방글라데시어로 "고마워"는 뭐야?

스잘: 그게 아미 또마께 발로바씨.

강예빈: 아미토…뭐라고?

스잘: 아미 또마께 발로바씨.

강예빈: 아미 또마께 발로바씨. 쉽네…아미 또마께 발로바씨 스잘~.

(사실 아미 또마께 발로바씨는 사랑해란 뜻인데.. 사랑에 눈이 멀어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스잘이다.)

이 대화는 강예빈이 기웅씨에게 여자찬구가 있는 지 확인하려고 스잘과 하던 대화이다. 여기에도 스잘이 거짓말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자신의 언어인 방글라데시어를 가지고 장난치는 스잘의 모습도 보인다. 그리고 외국문화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스잘은 인쇄회사에서 기계의 담당자로 일하는 이주노동자이다. 그는 자주 거지말을 하며 한국 문화를 너무나 잘 아는 이민자이다. 한국 문화를 잘 알아서 거짓말도 하며 한국인들에게서 이익을 받는 스잘은 드라마를 통해 일반 사람에게

방글라데시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반면에 자기 용돈 빼고 돈을 다 집에 보내고 가족의 행복을 자기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스잘의 역할로 방글라데시 이민자들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검은 피부 색깔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카림처럼 스잘도 차별이 받는다.

4. 영화와 드라마 분석

지난 10 년동안 외국인을 주제로 제작된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방글라데시인을 중심으로 제작된 영화와드라마는 거의 없었다. 방글라데시인이 등장한 몇 편의 영화와 드라마가 있어도 그것들은 방글라데시 국적 체류자만에 포커스을 두었다기보다 외국인을 중심으로 제작된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방글라데시인이 나타난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한국에서 살고 있는 방글라데시인의 지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을 2 편의 영화와 1 편의 드라마로 한정하였다. 첫 번째 신독 감독의 <반두비>(2009)라는 영화이다. 이 영화의 남자 주인공인 카림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한국에 일하러 온 방글라데시인이다. 영화속의 카림은 전에 일하던 곳에서 돈을 떼이고, 그 사장을 만나기 위해 여기저기로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다. 카림은 우연한 계기로 여자 주인공인 민서를 만나게 되고 한국생활에 지쳐가던 카림에게 이 민서는 외롭고 쓸쓸했던 삶속에서 만난 한 친구라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위에 서술했던 17 세 여고생과 이주노동자 청년 카림의 소통과 교감을 그린 영화 <반두비>를 통해 작가가 사실은 세 가지 담론을 그리려고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첫번째는 피부색에 따른 차별인데, 이는 결국 가난한 나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차별을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종적인 편견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번째는 다른 문화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이다. 작가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 중에 첫번째와 두번째는 오리엔탈리즘적 측면에서 볼 수 있고 세번째 거는 종족적 민족주의적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육상효 감독의 <방가 방가>(2010)라는 영화이다. 한국 공장에서 일하는 동남아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보여 주는 이 영화에는 다수의 동남아 사람이 등장한다. 등장인물중 방글라데시에서 온 외국인노동자인 알리의 역할을 통해

방글라데시에 대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다. 노래를 잘하는 알리는 5 년 동안 다른 동남아 노동자들과 같이 어느 한국 의자공장에서 일을 했고 그들의 알바장이 된 사람이었다.

<방가방가> 영화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와 함께 한국 사회의 청년 실업문제를 다루려고 한 것이 작가의 의도이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이해도 있고, 작가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윗 대화와 알리의 지위를 분석함으로써 동남아 사람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오리엔탈리즘적인 인식을 보여 주고 겉모습 때문에 방가를 피하는 것은 한국인의 종족적 민족주의적인 측면을 가리킨다.

세 번째 정환석 감독의 <막대먹은 영애 씨>라는 드라마이다. 이 드라마에 나타난 방글라데시인 스잘은 낙원종합인쇄사라는 회사에서 한국사람이랑 일을 한다. 스잘은 한국 생활에 200% 적응 완료된 인물로 나타났고 그의 역할을 통해서는 방글라데시인에 대한 모습을 약간 볼 수 있지만 다소 왜곡된 측면이 있다.

<막돼먹은 영애씨> 드라마에는 한국의 중소기업의 기업문화를 보여 주고 한국 청년들의 결혼문제와 한국 사회의 가족문화를 다루는 것이 작가의 기본 의도인데 중소기업인 만큼 동남아시아 노동자도 나오고, 그 중에서도 방글라데시 사람을 설정하고 있다. 여기에 스잘을 통해서 한국인들의 외국인 노동자들 혹은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보여주려는 것이 작가의 의도이다. 이 드라마는 다른 영화와 달리 스잘은 한국인들을 놀리고, 비판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다른 영화에서 이주노동자가 한국인에게서 차별 받고 한국인에게 속는 모습을 보여 주는데 반해 이 드라마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드라마에서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이주노동자 스잘은 자기의 한국어 능력을 이용해 역으로 오히려 한국인을 속이는 모습을 보인다. <막돼먹은 영애씨> 드라마의 다이얼로그과 스잘의 성격을 분석하다가 또 한국인이 다른 나라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인의 종족적 민족주의적인 생각을 가리키고 다른 외국인처럼 차별을 받는 것은 오리엔탈리즘적인 인식을 지적하면서 한국인에 대한 인식도 밝히게 되는 것이다.

4 장 미디어에 나타난 방글라데시인에 대한 한국 네티즌의 반응

1. 한국 네티즌의 반응

이장에는 앞에서 설명한 분석 대상 영화와 드라마에 관하여 네티즌들이 했던 리뷰나 코멘트 중에 방글라데시 관련된 코멘트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대상 영화와 드라마에 대해서 인터넷 상의 리비우나 코멘트들을 참고하였다. 참고 자료는 네이버, 다음과 같은 웹사이트에서 총 1296 건 (반두비에 대한 220 건(naver), 방가방가에 대한 605 건 (naver), 막돼 먹은 영애 씨에 대한 266 건 (다음))의 코멘트이며 그 중 방글라데시인에 관한 28 건의 코멘트가 있었다. 영화와 드라마에 따라 코멘트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반두비> 영화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26]

1. 너무 한쪽면만 부각 시켜서 찍은 영화네요. 방글, 파키 문제점이 얼마나 많은데.

rhd1**** 2011.02.26 01:57 신고

2. 반두비 감독도 자기 딸이 방글라 남자와 결혼하려고 하면 따귀를 때리고 저항하는데?

ppon**** *2009.08.01 23:37 신고*

3. 비정상적인 방글라데시인들을 너무 미화했다. 99%가 쓰레기인 방글라를 미화하지마라

bero**** *2009.06.26 21:23 신고*

4. 쥐랑똑같이 글로벌 호구인증하네,일본이 안먹는 소는 싫고 일본입국금지 방글라는 좋아?

[26] http://movie.naver.com/movie/bi/mi/point.nhn?code=50581#reviewTab.

sdwe**** *2009.07.06 05:28 신고*

5. 파렴치한 방글라데시인들을 미화한 위험한 영화

yoos**** *2009.06.26 13:04 신고*

6. 인종쓰레기 파키스칸, 방글라데쉬, 중국, 인도 옹호하는 영화라면 최악이네.

팬톨이(dark****) *2012.07.28 16:24 신고*

7. 이명박은 나도 싫은데,, 아시아국가들이 왜 파키,방글 단순노동입국 거부하는지 알긴하냐?

boq2**** *2010.02.05 09:22 신고*

8. 이렇게 편견없이 접근했다 방글라데시 불체자한테 성폭행당한 20 명의여중고생이불쌍하다

7rkw**** *2009.06.22 13:03 신고*

9.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출신이 주가된 불법체류자들이 우리나라 미성년자들을 상대로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이런 영화는 미성숙한 우리나라 미성년자들에게 성적인목적으로 친근하게 다가오는 불법체류자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환상을 심어줄수있어 위험하다

이지호(k2zl****) *2014.07.22 02:49 신고*

10. 개 1 씨 팔 동남아 방글라 불체자 세끼들

newg**** *2011.09.21 16:56 신고*

11. 반두비 뜻이. 이사람들 동남아 애들 얼마나 문란한지 모르네.....개판인데.. 굳이 ..

ghos**** *2009.07.06 10:07 신고*

12. 동냥은 못줘도 쪽박은 깨지마라 !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꼭 보세여 사회적약자의 현실을

show**** *2011.10.02 00:10 신고*

13. 이슬람의 율법을알고있는자는이영화를혐오한다....불쌍한한국여학생

seal**** *2010.10.26 15:53 신고* (반두비)

14. 무슬림국가가 얼마나 위험한데..이런영화가... 아이들이진짜 위험하다...

fren**** *2010.02.13 02:04 신고*

15. 정말 000 영화다 방글라데시는 꺼져라 파키스탄 이슬람교 제발 꺼져라

lee3**** *2010.11.10 16:36 신고* (반두비)

16. 다문화정책 찬성하는넘들 10 년후엔 다 후회할거다ㅉㅉ 무슬림은 없어져야할민족

sung**** *2009.06.22 09:55 신고*

17. 동남아노동자보다 미군들이 훨씬 악랄한걸. 장갑차로 여중생들을 깔아뭉개고도 무죄.

weep**** *2009.07.04 15:31 신고* (반두비)

18. 백진희의 시원한 연기가 일품이다. 정말로 잘 만든 영화. 소재가 참 좋다. 우리가 무시하는 동남아 외국인과누렁이의 사랑을 그린....방글라데시:한국 VS 한국:미국 ?? 해답은 세임이겠쥐? 흰둥이는 누렁이를 무시하고 누렁이는깜둥이를 무시하고..

크롱(hoon****) *2013.08.01 21:24 신고*

2) <방가방가> 영화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27]

1. 다 좋았는데 방가방가에 나오는 국가들의 국민들이 봤으면 기분나쁠영화임 욕하는게좀.

[27] http://movie.naver.com/movie/bi/mi/point.nhn?code=72648#reviewTab.

dnjs**** *2011.01.08 18:07 신고*

2. 불법체류자를 미화하지마라. 내용뭐 별거 없음. 불법체류자 뒤통수 칠대로 쳐놓고 감성으로 처리하는 짜증나는 더러운 영화.

Elec(pgwb****) *2013.08.23 04:08 신고*

3. 불체자들 더럽게 미화시키네ㅉ 니들 방글라, 파키인들한테 성폭행당해봐야 정신차릴래?

1004**** *2011.09.13 14:20 신고*

4. 불체자 욕하는거 맞는데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취업자들도 동남인이라고 깔보고 무시

dldl**** *2012.01.08 19:06 신고*

5. 알아듣지도못하는 외국노래를듣고 울컥한건 처음이였다

cher**** *2011.02.23 05:47 신고*

6. 우리나라에서 동남아 노동자들이 멸시받는것처럼 우리나라사람들도 해외서 똑같이 멸시당한다

wjdc**** *2011.10.16 03:04 신고*

7. 한국인 외국인 설정 신선. 씁슬하기도하고.. 암튼 알리 연기 괜춘했음. ^^

chok**** *2011.09.12 22:49 신고*

3) <막돼먹은 영애씨> 드라마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28]

1. 스잘~ 스잘때기 없는 배우?

인디언타올 2013.10.14 *신고*

[28] http://movie.daum.net/tv/detail/point/list.do?tvProgramId=63709.

2. 2007 년부터 열심히 봐준 기존 시청자를 호구로 보고 뒤통수친 제작진들.. 12 시즌 신선함을 강조하며 그동안 이끌어온 일등공신을 단칼에 잘라내고 말도안되는 회사에 집어넣고 식상한 노처녀 우환 진상스토리랑 러브라인을 또 보라고? 파격적으로 갈거 스잘로 러브라인 만들어라. 외국인과의 러브라인 엄청 신선하잖아?

dreamfor332013.08.09 *신고*

3. 다문화공정 이갈린다 여작가들 정신차려 한국에 불법체류율이 파키스탄 방글라데세 무슬림들이 97%다 강간률은 다른 외국인노동자보다 수천배 높고 이갈린다 외국인 단순인력으로 들어와서 아주 쉽게 방송에 연기자로 출연하냐 지나가는 단역도 아니구 조연으로 법무부에 연예비자 정식으로 받고 출연시키는거냐??

태오 2013.09.01 *신고*

2. 네티즌 반응에 대한 분석

위에 서술했던 코멘트들을 분석하면 28 명 한국인 중에 4 명이 방글라데시인만 불법체류자라고 생각하고 10 명은 방글라데시인을 나쁘게 생각하고 쓰레기라고도 한다. 5 명이 동남아 나라 사람이라고 코멘트하고 4 명은 방글라데시인이 무슬림이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다. 그리고 5 명만 방글라데시인에 관하여 긍정적인 코멘트를 썼다. 5 명의 긍정적인 코멘트에서 방글라데시인 또 외국인에 대한 동정심을 갖고 있는 점을 볼 수 있고 한국 사랑들이 선진국과 후진국 나라 사람을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는 지도 발견할 수 있었다. 네티즌들이 언급했던 코멘트들을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오리엔탈리즘적인 측면과 종족적 민족주의적인 측면이다.

네티즌의 리뷰들을 보면 한국 사람들이 방글라데시인들을 동남아시아 나라 사람이어서 낮게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영화 <반두비>, <방가방가>에서 카림과 알리의 역할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영화의 다이얼로그에서 분석했듯이 카림과 알리는 방글라데시라는 후진국에서 온 노동자이며, 네이버와 다음에서 나타난 코멘트에서도 한국인들은 방글라데시인들을 낮은 지위의 사람이라고 간주하며 리뷰를 썼다. 그리고 방글라데시이면 불법체류자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인들은 방글라데시인들이 이슬람교도이므로 이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며 방글라데시인도 마찬가지로 위험하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네티즌의 리뷰를 통하여 이런 인식은 한국사회에 남아 있는 오리엔탈리즘과 종족적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1 장에 언급했던 '오리엔탈리즘'라는 개념을 따르면,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에 대한 서양의 우월성이나 동양에 대한 서양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서양의 동양에 대한 고정되고 왜곡된 인식과 태도 이다. 그러나 피터벅의 내부 오리엔탈리즘이란 개념으로써 오리엔탈리즘은 동일한 영역 내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한국인이 한국에서 거주하는 방글라데시인들을 동남아나라 사람이고 더러운 나라에서 온 하위주체와 위험한 무슬림 사람이라는 인식을 반영한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종족적 민족주의라는 개념도 이런 인식에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 수 있다. 종족적 민족주의는 민족의 종족적, 집단주의적, 유기적인 본질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인들은 외부의 위협에 맞서 한민족의 내부적 연대와 집단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29]. 위에 언급했던 코멘트들을 통하여 방글라데시인들은 유색 흑인 외국인이고 한국에서 보편적이지 않은 이슬람이란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는 방글라데시인에 대한 한국인의 위험하다는 인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것은 바로 종족적 민족주의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28 명의 코멘트 중 5 명이 방글라데시인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대다수인 23 명이 방글라데시인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를 다수의 의견이라고 여기면 방글라데시인에 대한 한국 사람의 인식은 오리엔탈리즘과 종족적 민족주의에 갇혀 있는 인식을 파악된다..

29 박찬승, 위의 글, 341 쪽.

제 5 장 결론

1990 년대부터 외국인들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2004 년부터 시행된 외국인고용허가제로 인해 방글라데시를 포함한 동남아 15 개 국가에서 들어오고 있는 노동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두 이주민임에도 불구하고 백인과 흑인 그리고 동남아 외국인에 대해 처우에는 차별이 존재한다. 방글라데시인들은 한국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 수에 비해 적은 비중을 차지하여 그렇게 주목을 받지못했음에도 최근 한국 영화와 드라마에 방글라데시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본 논문은 방글라데시인이 나타난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통하여 방글라데시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분석였다.

본 논문 3 장과 4 장에 언급했던 2 편의 영화 <반두비>, <방가방가>와 드라마 <막돼 먹은 영애씨>에서 등장한 3 명의 방글라데시 이주민은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영화와 드라마의 다이얼로그와 내용을 분석하고 4 장에서 이 영화와 드라마에 대한 네티즌들의 코멘트 중에 방글라데시인에 관한 코멘트들을 분석하고 한국인들이 방글라데시인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본 것이다.

그 동안 외국인이 나타난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분석하는 대다수의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으로써 전체 외국인의 지위, 그들이 당하는 문제들을 분석하고 그들에 대해 한국인의 인식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단지 방글라데시를 중심으로 방글라데시 이주민에 대해 한국인의 인식을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

한국에서 소개되는 방글라데시는 남부 아시아의 작은 나라이며 가난한 나라이다. 한국 사람들은 방글라데시에 대한 관심이 적고, 한국에 살고 있는 방글라데시 이주민들을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지고 인식한다. 특히 텔레비전 드라마와 영화에서 외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지고 묘사할 경우 드라마와 영화를 보는 한국인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 또한 인터넷의 보편화로 미디어 환경은 더욱 급속하고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 소통과 정보 공유, 인맥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강화시켜주는 온라인 플랫폼은 인터넷 시대에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 인기가 많은 미디어이다. 사람들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그 것에 대해 인터넷 상에 코멘트나 리뷰를 쓴다. 이를 고려하여 본 논문은 영화와 드라마처럼 대중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미디어 장르와 온라인 미디어를 통하여 방글라데시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를 방글라데시인의 대표자라고 보았다. 한국에 방글라데시 이주 노동자 밖에도 학생, 사업자, 연구원 등 다양한 자격을 갖고 있는 이주민들도 있지만 한국의 방글라데시 이주민 14318 명 중 이주노동자는 9783 명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신독 감독의 <반두비>(2009), 육상효 감독의 <방가방가>(2010) 그리고 정환석 감독의 <막돼 먹은 영애 씨>라는 드라마에 출연한 방글라데시 이민자 카림, 알리, 스잘의 성격과 그들의 대화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 두 편의 영화와 한 편의 드라마에 대한 네이버, 다음 웹사이트에 쓰여 있는 네티즌들의 코멘트를 분석한다.

<반두비> 영화의 분석을 통해 작가의 세 가지 의도를 발견됐다. 첫번째는 피부색에 따른 차별로 이는 결국 가난한 나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차별을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종적인 편견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번째는 다른 문화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작가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 중 첫번째와 두번째는 오리엔탈리즘적 측면에서 볼 수 있고 세번째는 종족적 민족주의적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영화 <방가방가>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함께 한국 사회의 청년 실업문제를 다루고 있다. 영화의 대화와 알리의 지위를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동남아 사람에 대한 한국인의 오리엔탈리즘적인 인식을 보여 주고 외모 때문에 방가를 피하는 한국인의 종족적 민족주의적인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는 한국 중소기업의 기업문화를 보여 주고 한국 청년들의 결혼문제와 한국 사회의 가족문화를 다루는 것이 작가의 기본 의도이며 중소기업이기에 동남아시아 노동자가 나온다. 이 드라마에서 다른 영화와 달리 때로 스잘은 차별만 받지 않고 오히려 한국인들을 놀리고, 비판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 드라마의 다이얼로그와 스잘의 성격을 분석하다가 한국인이 다른 나라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는 한국인의 종족적 민족주의적인 생각을 가리키고 피부색 때문에 스잘은 차별을 받는 것은 오리엔탈리즘적인 인식을 지적한다.

네티즌들이 언급했던 코멘트들에서도 오리엔탈리즘적인 측면과 종족적 민족주의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이 리뷰들의 분석을 통해 한국인이 방글라데시인을 동남아시아 나라 사람이어서 하위주체라고 간주하고, 불법체류자라고 생각하며 위험한 무슬림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영화와 드라마에 나타난 방글라데시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연구를 통해 최근 한국 사회가 외국인의 증가의 추세로 다문화사회로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오리엔탈리즘과 종족적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한국인의 사고체계를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고 문헌

1. 국문 자료

1) 단행본

박지훈, 허철, 2010, 「할리우드의 아시안 이미지 재현에 대한 산업적접근 책명」, 『아세아연구』, 제 53 권 3 호.

안상훈, 2012, 「오리엔탈리즘과 바츨라프 세로셰프스키의 한국」, 『슬라브 연구』, 28 권 4 호.

육상효, 2010, 「한국영화와 TV 드라마에 나타난 베트남 여성상 고찰」, 『동남아시아연구』, 20 권 2 호.

전창호, 김선호, 2008, 「영화에 나타난 사서의 이미지 분석」, 『정보관리연구』, Vol. 39, no.1.

정현경, 2011, 「영화로 재현된 디아스포라 연구-<로니를 찾아서>와 <반두비>를 중심으로」, 『어문연구학회』, Vol 67.

주혜연, 노광우, 2013, 「드라마속에 재현된 외국인과 한국의 다문화주의」, 『만화애니메이션연구』, 통권 제 32 호.

황영미, 2010, 「한국 영화에 나타난 다문화 양상 연구: 이방인 수용 양상을 중심으로」, 『영화연구』, 47 호.

류찬열, 2010,「2000 년대 한국영화에 나타난 이주노동자의 재현 양상연구－<로니를 찾아서>와 <반두비>를 중심으로－」,『다문화콘텐스연구』,Vol 8.

문소영, 2006, 「한국영화의 나타난 오리엔탈리즘 연구 -영화 <파이란>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여성학연구』, 제 16 권 제 1 호.

현승수, 2011, 「종족 민족주의에서 혁명적 민족주의로— 조지아 국가 형성 과정 연구 —」, 『한양대학교 유라시아의 체제전환 20년: 국가건설과 경제발전』.

박찬승, 2009, 「한국 민족주의와 종족적 민족주의의 해석: 신기욱, "한국 민족주의의 계보와 정치"」, 『역사와 현실』통권 72호.

손은하, 2007,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의 타자화: 재현된 영상물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Vol. 7 No.1.

민경익, 2012, 「미디어분석을 통한 한국관광 인식에 관한 연구-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제 36권 제 10호(제 106호).

2) 논문

이성희, 2006, 「한국인의 해외입양인에 대한 인식 조사: 접촉집단과 비접촉집단의 인식 비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 석사학위논문.

조혜경, 2011, 「한국인 모어 화자와 비모어 화자 간의 공손 인식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준호, 2004,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에 대응한 외국인 근로자 선교전략 고찰: 재한 방글라데시 근로자를 중심으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신링, 2011, 「한국 연예인 광고모델에 대한 중국인과 한국인의 인식 차이 연구: 상호지향성 모델을 통한 비교」,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혜우, 2011, 「귀환이주활동가의 사회운동과 초국적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 방글라데시 네팔 노동자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재영, 2012「한국 다문화 사회의 이중성-영상매체 분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 상 현, 2014, 「한국 영화 속 이주민의 재현에 대한 연구-영화 <방가방가>, <완득이>, <황해>, <차이나블루>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준호, 2004,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에 대응한 외국인 근로자 선교전략 고찰: 재한 방글라데시 근로자를 중심으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정현, 2012, 「국제결혼가정 학생의 한국인에 대한인식과 문화적 관심이 자아정체성에미치는 영향」,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길자, 2004, 「사회과 미디어 수업을 통한 의미구성과 재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 영문 자료

1) 단행본

Edward Said, *Orientalism.* New York: Pantheon, 1978..

Prey, Robert, *Different Takes: Migrant World Television and Multiculturalism in South Korea Global Media Journal,* Canadian Edition Volume 4, Issue 1, 2011.

2) 논문

MamunOr Rashid, Mohammed, “A Study on Conditions of Bangladeshi Migrants Workers in South Korean Labor Market”,SungKongHoe University, 2008.

Son, Anna, “Adjustment of Foreigners in Korea: A Case Study of International Students”, EwhaWomans University, 2002.

Han, Se Hee, “Globalization and Hybryidity of Korean Cinema: Critical Analysis of Korean Blockbuster Films”, University of Texas, 2011.

Cha, Sung Taik, “How U.S. Audiences View Korean Films: A Case: Study of Oldboy”, University of South Florida, 2006.

Rozario, Shishir, “A Study on the Role of Policy and Civil Society on Migrant Workers Issue in South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Bangladeshi Migrant Workers, SungKongHoe University”, 2008.

3) 기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2014 년 11 월호.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연보』, 200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통계월보』,2014 년 9 월호.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P.POP.TOTL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4, International Monetary Fund. Database updated on 7 October 2014. Accessed on 8 October 2014.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4, International Monetary Fund.

http://classic.ajou.ac.kr/SEA/201302/9F9026D5D7B9F0B.pdf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6542.html

http://www.eurasiahub.org/data/ftproot/2011_1%EC%B0%A8_%EC%82%AC%ED%9A%8C%EB%B6%84%EA%B3%BC/%ED%98%84%EC%8A%B9%EC%88%98.pdf

http://news.donga.com/3/all/20060613/8317448/1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420014031202116025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5561.html

http://koreamin.tistory.com/77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573

http://movie.naver.com/movie/bi/mi/point.nhn?code=50581#reviewTab

http://movie.naver.com/movie/bi/mi/point.nhn?code=72648#reviewTab

http://movie.daum.net/tv/detail/point/list.do?tvProgramId=63709

<Abstract>

A Study on Perception of Koreans about Bangladeshi people through Media

SHEULI FATEHA

Korean Studies Department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1990s the inflow of foreign workers in a full-scale South Korea is becoming a multinational country with the numbers of foreigners. But it is seemed that Korean people's perception about foreigners is not changing at the same pace. To discriminate against foreigners is a common phenomenon in Korea. In recent years South Korean media is focusing on foreigners and a number of popular films and dramas are produced where foreigners are acted as the main role. Most of these films and dramas are about the problems of discrimination that migrant workers are suffering from Korea.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are very diverse and among other Asian countries the number of residents from Bangladesh is very small. Although the number of Bangladeshi people is small in size recently Bangladeshi residents are appeared in the Korean movie or drama as a major role. A number of researches are done about the foreigners in Korea which are also mostly about the discrimination of Asian workers in Korean society. But they are lacked of revealing ordinary citizen's perception of South Korea.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the perception of Koreans about not all Diasporas but only the Bangladeshi Diasporas living in Korea extracting the recreation of Bangladeshi migrant workers in the two films <Bandhobi> and < Banga Banga> and the drama< Rude Ms.Young Ae > an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esponse of Korean netizens about these movies and drama.

This study shows that Korean people keep some stereotypes in their mind about Bangladeshi people. Such as Bangladeshi people are a lower class society member from south-east Asia, most of them are illegal migrants and they are strange and dangerous because they are Muslim. Also reaction of netizens about above mentioned movies and dramas are reflecting this reality. This prejudice can be explained in terms of Orientalism. This study also shows that Koreans are still stuck on the concept of ethnic nationalism through being not concerned about the culture of other countries or nations.

With the intention of the writers of above mentioned film and drama and the reaction of netizens about those films and drama this study shows that although South Korea is in a trend of becoming a multicultural society, still conception of orientalism and ethnic nationalism is dominating Korean people's mindset.

Key words: Bangladeshi migrant workers, Korean people, perception, Orientalism, Ethnic nationalism.

Student ID: 2012: 22830